

『摩訶止觀』에서 無生門의 解釋에 관한 研究

李 承 南(光道) (금강대학교 불교문화연구소 연구원)

1. 序論

『摩訶止觀』에서는 三諦圓融의 實相을 깨닫는 방법으로 圓敎止觀을 제시하고 있으며, 이러한 圓敎止觀은 一心三觀으로 말할 수 있다.¹⁾ 또한 『摩訶止觀』에서는 諸法의 實相인 三諦圓融을 一心三觀하여 깨닫는데, 그 관하는 경계로 마음을 기본으로 삼고 있다. 다시 말해 觀心法을 중시하고 있다. 이러한 觀心의 方法으로 十法門을 제시하고 있는데 그것이 곧 十乘觀法²⁾이다.

1) 藏敎止觀은 析法止觀(析空觀)이라고 하며, 通敎止觀은 體法止觀(體空觀)이라고 하며, 別敎止觀은 次第三觀이라고도 한다.

2) 十乘觀法의 대경은 十境으로 一陰界入·二煩惱·三病患·四業相·五魔事·六禪定·七諸見·八增上慢·九二乘·十菩薩의 열가지이다. 여기서 一陰界入이 그 중심이 되고 있으며 陰界入 가운데서도 心 즉 五陰 가운데 識陰이 그 중심이 되고 있다. 智顛說, 『摩訶止觀』(『大正藏』46, p.49上-中). “開止觀為十一陰界入二煩惱三病患四業相五魔事六禪定七諸見八增上慢九二乘十菩薩…”

天台가 제시한 十乘觀法은 一觀不可思議境·二起慈悲心·三巧安止觀·四破法遍·五識通塞·六修道品·七對治助開·八知次位·九能安忍·十無法愛的 열 가지 法門³⁾이다. 이러한 十乘觀法은 그 하나하나가 一心三觀에 관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러한 열 가지 가운데 네 번째인 破法遍은 그 자체가 一心三觀이고, 破法遍에서는 이러한 一心三觀을 空觀·假觀·中觀으로 나누어서 그 하나하나에 대하여 자세하게 설하고 있다. 다시 말해 十乘觀法 가운데 一心三觀에 관하여 가장 구체적으로 설하고 있는 것이 바로 破法遍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러므로 破法遍을 보면서 곧 一心三觀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알 수 있고, 또한 그것을 어떻게 이루어 가는가를 알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破法遍에 대하여 충분히 연구할 가치가 있다. 더구나 圓頓止觀이나 十乘觀法等에 대한 연구는 많이 진행되고 있으나 破法遍만을 독립된 주제로 하여 다룬 논문은 많지 않은 실정이다. 이러한 점에서 破法遍을 중점적으로 연구하는 것은 『摩訶止觀』을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된다.

天台는 『摩訶止觀』의 破法遍에서 門에 대하여 설명을 하면서 여러 경전에 教門·觀門·智門·理門 등의 門이 있음을 말하고 있다. 그리하여 破法遍도 이러한 門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함을 말하고 있다. 특히 破法遍을 서술하면서 無生の 教門을 바탕으로 한 觀門의 破法遍인 無生門破法遍을 중심으로 일체의 혹을 파할 수 있음을 말하고 있다.

破法遍의 수행체계는 豎破法遍·橫破法遍·非橫非豎破法遍의 세 가지로 나누어진다.⁴⁾ 豎破法遍은 無生門으로 설명하며, 橫破法遍은 無生の

3) 智顓說, 『摩訶止觀』(『大正藏』46, p.52中). “觀心具十法門 一觀不可思議境 二起慈悲心 三巧安止觀 四破法遍 五識通塞 六修道品 七對治助開 八知次位 九能安忍 十無法愛也”

4) 上揭書, p.62上. “次明破法遍者為三一無生門從始至終 盡其源底豎破法遍 二歷諸法門當門從始至終 盡其源底橫破法遍 三橫豎不二從始至終 盡其源底非橫非豎破法遍 豎則論高橫則論廣 豎來入橫 無橫而不高 橫來入豎 無豎而不廣 法華云 其車高廣 橫豎不二 則非橫非豎 故云 是法平等 無有高下”

餘門으로 설명하며, 非橫非豎破法遍은 橫과 豎가 둘이 아닌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破法遍의 수행체계는 無生門破法遍·無生の 餘門破法遍·橫豎一心破法遍의 세 가지라고 말할 수 있다. 그리고 『摩訶止觀』에서 破法遍을 서술하는데 있어서 그 중심은 無生門破法遍이라고 말할 수 있다.

無生門破法遍도 또한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⁵⁾ 즉 第一從假入空破法遍과 第二從空入假破法遍 그리고 앞의 두 가지 觀을 方便으로 하여 들어가는 第三中道第一義諦破法遍이 그것이다. 이것은 곧 空觀·假觀·中觀의 三觀에 다름 아니다. 그리고 이러한 三觀은 一心에 있으며, 곧 一心三觀이다. 다시 말해 無生門破法遍은 一心三觀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無生門破法遍은 教門인 無生門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摩訶止觀』에서는 破法은 반드시 門에 의해서 해야 한다⁶⁾고 하면서, 門으로 教門·觀門·智門·理門 등이 여러 경전에 나타나고 있음을 말하고 있다.⁷⁾ 그리고 教門·觀門·智門·理門의 순서로 통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教門에 의하여 觀으로 통하고 觀門에 의하여 智에 통하고 智門에 의하여 理에 통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摩訶止觀』에서는 藏教·通教·別教·圓教의 四教의 教門 가운데 圓教의 四門 즉 有門·無門·亦有亦無門·非有非無門만이 破法遍에서 사용가능하다⁸⁾고 하고 있다.

5) 同揭書. “一無生門破法遍者 又為三 一從假入空破法遍 二從空入假破法遍 三兩觀為方便得入中道 第一義諦破法遍 如此三觀實在一心 法妙難解寄三以顯一耳”

6) 上揭書, p.59中. “然破法須依門”

7) 同揭書. “經說門不同 或文字為門 大品明四十二字門是也 或觀行為門 釋論明菩薩修三昧緣諸法 實相是也 或智慧為門 法華云其智慧門是也 或理為門 大品明無生法無來無去即是佛也 依教門通觀 依觀門通智 依智門通理 理為門復通何處 教觀智等諸門悉依於理 能依是門 所依何得非門 雖無所通 究竟通通是妙門也”

8) 同揭書. “三門置之今但說教門 三藏四門先破見 後破思 亦俱破(云云) 通教四門亦先破見 後破思 亦俱破 但破四住不得言遍也 別教四門次第斷五住 斯乃豎遍橫不遍 並非今所用 今不思議一境一切境 一心一切心 橫豎諸法悉趣於心 破心故一切皆破 故言遍也 餘門破不遍則不須說 圓教四門皆能破遍 所謂有門無門 亦有亦無門 非有非無門”

이러한 圓敎의 四門 가운데 無門이 곧 無生門이다.⁹⁾ 『摩訶止觀』의 破法遍에서는 圓敎의 無生門을 설명하고 이것을 바탕으로 一心三觀의 止觀을 하여 一切種智를 얻어 三諦圓融을 철저히 비추는 것을 설하고 있다. 다시 말해 圓敎의 無生門이 敎門이고, 一心三觀이 觀門이며, 一心三智가 智門이고, 三諦圓融이 理門인 것이다. 이 가운데 敎門인 無生門을 설명하고 이것을 바탕으로 한 觀門인 無生門破法遍이 『摩訶止觀』의 破法遍을 서술하는데 있어서 그 중심이 되고 있다.

여기서 空門인 無生門은 곧 無生을 설하므로 破하는 것에 대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러한 無生の 敎門을 바탕으로 한 觀門인 無生門破法遍은 곧 一心三觀으로 三觀은 空觀·假觀·中觀을 말한다. 이 때 이러한 三觀이 모두 破의 의미를 가질 수 있다. 곧 空觀은 破有를 의미하고, 假觀은 破無를 의미하고, 中觀은 雙非 다시 말해 非有非無를 의미한다¹⁰⁾고 할 수 있다. 또한 空觀은 見思惑을 破하고, 假觀은 塵沙惑을 破하고, 中觀은 無明惑을 破한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無生門은 破의 의미만 있고 立의 의미는 없는 것인가?

만일 無生門에는 破하는 의미만 있다고 한다면 無生門의 敎門을 바탕으로 한 觀門인 無生門破法遍은 모두 破하는 것만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無生門破法遍은 실제로 破하는 것뿐만 아니라 立하는 것도 있다. 나아가 非破非立 또는 亦破亦立하는 것도 있다.

無生門破法遍은 空觀·假觀·中觀의 三觀의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이러한 각각은 生不生止觀破法遍·不生生止觀破法遍·不生不生止

9) 同揭書, “圓敎四門皆能破遍 所謂有門無門 亦有亦無門 非有非無門 今且置三門 且依空無生門”

10) 上揭書, p.69上. “問 從假入空破無量見 下二觀復何所破 答 入空之觀破見及思 東而言之祇是破有 次觀所破祇是破無 中觀所破雙非二邊正顯中道”

觀破法遍의 세 가지로도 말하여지고 있다. 이것은 또한 각각 自行·化他·雙非自他 또는 雙照自他라고도 한다.¹¹⁾ 여기서 三觀 가운데 假觀은 破無 또는 破塵沙惑의 의미로서 破의 의미를 가질 수 있지만, 또한 그것은 利他的 의미¹²⁾로서 知病·識藥·授藥¹³⁾을 말하며 이때는 立의 의미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無生門破法遍에서는 假觀을 설명하면서 이러한 破의 의미로 설명을 하기보다는 知病·識藥·授藥의 立의 의미로 설명¹⁴⁾을 하고 있다.

이와 같이 空觀은 破하는 것이고, 假觀은 立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中觀은 雙非自他 또는 雙照自他이므로 곧 雙破 또는 雙立으로 非破非立 또는 亦破亦立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것이 一心에 있다는 것이므로, 破·立·非破非立 또는 亦破亦立이 모두 ‘即’ 하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無生門破法遍에는 破·立·非破非立 또는 亦破亦立의 의미가 모두 ‘即’ 하여 갖추어져 있다고 할 수 있다. 觀門인 無生門破法遍은 教門인 無生門을 바탕으로 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無生門 또한 破·立·非破非立 또는 亦破亦立의 의미를 모두 갖추어야만 하는 것이다.

天台는 대승의 경전을 인용하여 그곳에 無生門이 있음을 말하고 그러한 경전에서 설하고 있는 無生門에 관한 내용을 해석하면서 無生門이 破·立·非破非立 또는 亦破亦立의 의미를 모두 갖추고 있음을 말하고 있다.天台의 이러한 해석을 분석하여 그 체계를 밝혀보고자 한다.

11) 上揭書, p.80中. “第三明中道止觀破法遍者 前生不生止觀破法遍 一往似自行 次不生生止觀破法遍 一往似化他 今不生不生止觀破法遍 一往似雙非自他又雙照自他 生不生即不生 亦即不生 生自即不自亦非自非不自 不生生即生不生 亦是不生不生 他即非他亦非他非不他 不生不生即生不生 亦是不生生 亦是不雙非 亦是不雙照 種種分別令易解故作如前說耳”

12) 上揭書, p.75下. “志存利他即入假之意也”

13) 上揭書, p.76上. “三明入假觀者 即為三一知病 二識藥 三授藥”

14) 上揭書, p.80中. “從空入假破法遍亦爾 假有無量病法藥法授藥法 分別此三有所不達 不名破法遍”

2. 本論

1) 無生門의 攝·相·義

(1) 攝

일체의 經論은 藏敎·通敎·別敎·圓敎의 四敎로 교판할 수 있다. 이러한 四敎는 각각 有門·無門·亦有亦無門·非有非無門의 四門을 모두 갖추고 있다. 天台는 破法은 반드시 門에 의해서 해야 한다¹⁵⁾고 하였으며, 破法遍에서는 門을 중심으로 수행의 체계를 세워놓았다. 『摩訶止觀』의 破法遍에서는 藏敎·通敎·別敎·圓敎의 四敎의 四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三藏의 四門은 먼저 見惑을 파하고, 후에 思惑을 파하며, 또한 모두 파한다. (운운) 通敎의 四門은 또한 먼저 見惑을 파하고, 후에 思惑을 파하며, 또한 모두 파한다. 다만 四住¹⁶⁾를 파하므로 遍이라고 말하지 않는다. 別敎의 四門은 次第로 五住¹⁷⁾를 끊으며, 이것은 豎遍이지만 橫不遍이므로 또한 여기서 사용되는 것은 아니다. 이제 不思議한 一境一切境·一心一切心으로 橫豎諸法이 모두 마음으로 나아가며, 破心을 하여 一切를 모두 破하므로 遍이라고 말한다. 餘門은 破不遍이므로 설하지 않으나, 圓敎의 四門

15) 上揭書, p.59中. “然破法須依門”

16) 四住란 四住地라고도 하며, 見一處住地·欲愛住地·色愛住地·有愛住地를 말한다. 이것은 곧 三界의 見思惑을 말하는 것이다.

17) 五住란 五住地 또는 五住地惑이라고도 하며, 見一處住地·欲愛住地·色愛住地·有愛住地·無明住地를 말한다. 이것은 곧 界內의 見思惑과 界外의 無明惑을 말하는 것이다.

은 모두 능히 破遍을 하며, 이를 테면 有門·無門·亦有亦無門·非有非無門이 그것이다.¹⁸⁾

여기서는 四敎의 四門에 대하여 설명을 하면서 圓敎의 四門만이 破法遍에서 사용가능함을 말하고 있다. 三藏敎의 四門은 見思惑만을 끊으며, 通敎의 四門도 또한 見思惑만을 끊는다고 한다. 藏敎와 通敎에서는 見思惑만을 끊으므로 豎遍이라고 말할 수 없다. 그리고 別敎의 四門은 無明惑을 끊지만 次第로 破하므로 橫遍이라고 말할 수 없다. 圓敎에서는 一境一切境·一心一切心を 말하며, 橫과 豎의 諸法이 모두 마음이므로 破心을 하여 一切를 모두 破하게 되므로, 圓敎의 四門은 豎遍과 橫遍을 말할 수 있고 따라서 破法遍은 圓敎에서만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것을 간단히 표로 나타내보면 다음과 같다.

표. 四敎의 破惑과 破法遍

四敎의 破惑				
敎門	藏敎의 四門	通敎의 四門	別敎의 四門	圓敎의 四門
破惑	破見思惑	破見思惑	破無明惑 (次第)	破無明惑 (不次第)
遍不遍	不豎遍·不橫遍	不豎遍·不橫遍	豎遍·不橫遍	豎遍·橫遍

위에서 보듯이 破法遍은 圓敎의 四門에서만 가능한 것이다. 破法遍은 圓敎의 四門에서만 가능하고, 破法은 반드시 門에 의해서 해야 한다고 하

18) 同揭書. “三藏四門先破見 後破思 亦俱破(云云) 通敎四門亦先破見 後破思 亦俱破 但破四住不得言遍也 別敎四門次第斷五住 斯乃豎遍橫不遍 並非今所用 今不思議一境一切境 一心一切心 橫豎諸法悉趣於心 破心故一切皆破 故言遍也 餘門破不遍則不須說 圓敎四門皆能破遍 所謂有門無門 亦有亦無門 非有非無門”

면, 破法遍은 圓敎의 四門으로 설명을 해야만 한다. 따라서 破法遍에서는 藏敎의 四門·通敎의 四門·別敎의 四門을 廢하고 圓敎의 四門을 사용해야 함을 알 수 있다. 이러한 圓敎의 四門 가운데 無生門破法遍에서는 無門인 無生門을 사용하고 있다.

天台는 圓敎의 無生門에 대하여 그것이 橫과 豎로 包攝한다고 하였다. 먼저 豎攝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無生門은 능히 止觀을 통해 因에 이르고 果에 이른다. 또한 능히 無生을 드러내어 門이 빛나게 한다. 왜 그런가. 止觀은 이것이 行이고, 無生門은 이것이 敎이며, 敎에 의거하여 修行을 하면 無生法忍에 통하게 되고, 因位를 具足하게 된다. 『淨名經』에서 三十二菩薩이 각자 入不二門을 설하였는데, 모두 이것은 菩薩이 門으로 位에 들어서는데 無生을 앞세운 것이었다. 『大品般若經』에서는 阿字門을 밝혔는데, 이를테면 諸法이 처음부터 不生이라고 하였다. 이러한 것은 無生門이 止觀을 통하여 因에 이르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다.¹⁹⁾

여기서는 無生門이 止觀을 통해 無生法忍의 因에 이르는 것을 설명하고 있다. 無生門은 敎이며 止觀은 行으로, 無生門의 敎에 따라 止觀을 수행하면 無生法忍에 이르고 因位를 갖춘다는 것이다. 그 예로서 『淨名經』의 入不二門과 『大品般若經』의 阿字門을 들었다.

19) 同揭書, “無生門能通止觀 到因到果 又能顯無生使門光揚 何者 止觀是行 無生門是敎 依敎修行通至無生法忍 因位具足 淨名三十二菩薩 各說入不二門 皆是菩薩從門入位 而無生為首 大品明阿字門 所謂諸法初不生 此證無生門通止觀到因”

또한 『摩訶止觀』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門이 果에 통한다는 것이다. 『大般涅槃經』에서 말하기를, 般涅槃은 ‘不’을 말하며 槃은 ‘生’을 말하므로 ‘不生’의 뜻은 大涅槃을 말한다고 하였다. 또한 『大般涅槃經』에서 말하기를, 定과 慧의 두 가지 法은 능히 大利益 내지 菩提를 준다고 하였다. 『大品般若經』에서 말하기를, 無生法은 無來無去이며 無生法이 곧 이것이 佛이라고 하였다. 『法華經』에서 말하기를, 佛은 스스로 大乘에 머물며 그와 같이 얻은 법을 定과 慧의 힘으로 莊嚴하며 이것으로 衆生을 제도한다고 하였다. 잠시 세 가지 經을 인용하여 果의 뜻을 밝혔다. 止觀이 능히 果를 드러낸다는 것은 果가 스스로 드러나지 않으며 行으로 인하여 果가 채워지며 果가 채워지므로 一切가 모두 채워진다는 것이다.²⁰⁾

여기서는 無生門이 止觀을 통해 果에 이르는 것을 설명하고 있다. 이러한 果에 대하여 『大般涅槃經』과 『大品般若經』 그리고 『法華經』의 세 가지 經을 인용하여 설명하였다. 우선 『大般涅槃經』에서는 不生을 大涅槃이라고 이름한다는 것이다.²¹⁾ 『大品般若經』에서는 無生法이 곧 佛이라는 것이다. 『法華經』에서는 佛은 定과 慧의 힘으로 莊嚴한다는 것이다.

20) 同揭書. “門通果者 大經云 般涅槃言不槃者言生 不生之義名大涅槃 又云 定慧二法能大利益乃至菩提 大品云 無生法無來無去 無生法即是佛法華云 佛自住大乘如其所得法 定慧力莊嚴 以此度衆生 且引三經果義明矣 止觀能顯果者 果不自顯 由行故果滿 果滿故一切皆滿”

21) 『大般涅槃經』에서는 涅槃의 뜻이 不滅이라고 하였다. 『大般涅槃經』(『大正藏』12, p.514下). “善男子 涅槃者言不槃者言滅 不滅之義名為涅槃” 『摩訶止觀』에서는 不滅이 곧 不生이므로 大涅槃의 뜻을 不生이라고 한 것이다.

이와 같이 無生門으로 止觀을 통해 因位와 果位에 이를 수 있는데 그것을 豎攝한다²²⁾고 하였다. 이것은 다시 말해 無生門을 바탕으로 止觀을 수행하면 因位를 거쳐 妙覺의 果位에도 이를 수 있음을 말하고 있다. 결국 無生門破法遍으로 진사혹뿐만 아니라 무명혹도 모두 파하여 묘각을 성취할 수 있음을 말하고 있다.

다음으로 天台는 無生門이 橫攝하는 것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橫攝의 뜻을 이제 마땅히 설한다. 『大品般若經』에서 말하기를, 만약 無生門을 들으면 곧 一切의 뜻을 이해하며 처음의 阿字가 四十一字를 포섭하며 四十一字가 阿字를 포섭하고 中間도 또한 그러하다고 하였다.²³⁾

여기서는 無生門이 一切의 뜻을 가지고 있음을 말하고 있다. 『大品般若經』의 四十二字를 인용하여, 처음의 阿字가 四十一字를 포섭하고, 四十一字가 阿字를 포섭하며, 모든 字가 이와 같음을 말하고 있다. 天台는 이것이 無生門의 橫攝의 뜻이라고 하였다.

이와 같이 無生門은 橫과 豎로 모두 포섭한다는 것이다. 이것을 간단히 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22) 智顛說, 『摩訶止觀』(『大正藏』46, p.59下). “無生教門豎攝因果 其義已彰”

23) 上揭書, pp.59下-60上. “橫攝之意今當說 大品云 若聞無生門則解一切義 初阿字攝四十一字 四十一字攝阿字 中間亦然”

표. 無生門의 豎攝과 橫攝

無生門	豎攝	因位	通至無生法忍
		果位	大涅槃·無生法即是佛·定慧力莊嚴
	橫攝	聞無生門 則解一切義	

여기서 보듯이 無生門이 因位와 果位 等 수행의 계위를 모두 포괄하고 있으며, 또한 一切의 義를 갖추고 있다. 無生門이 모든 계위를 포괄하고 있다는 것은 곧 無生門에 공관의 계위·가관의 계위·중관의 계위를 모두 포괄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無生門이 一切의 義를 갖추고 있다는 것은 無生門에 破하는 의미뿐만 아니라 立하는 의미도 있으며 또한 非破非立 또는 亦破亦立하는 의미 등도 있어 四句의 의미를 모두 갖추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만일 空觀이 破하는 것이고, 假觀은 立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中觀은 雙破 또는 雙立으로 非破非立 또는 亦破亦立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無生門이 공관·가관·중관을 모두 포섭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이와 같이 無生門의 豎攝과 橫攝에 모두 공관·가관·중관이 포함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天台는 사람들이 無生門의 橫과 豎로 모두 포섭하는 뜻을 이해하는 것이 어려우므로 다시 『佛藏經』을 인용하여 그 相을 보이고, 『大般涅槃經』을 인용하여 그 義를 해석한다고 하였다.²⁴⁾

(2) 相

앞에서는 天台가 여러 경전을 인용하여 無生門이 橫과 豎로 모두 포섭하고 있다는 것을 밝히고 있음을 보았다. 또한 天台는 無生門의 相에 대하여 『佛藏經』을 인용하여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24) 上揭書, p.60上. “其文如此 此意難見 更引佛藏示其相 次引涅槃釋其義 後說無生門破法遍”

『佛藏經』에서 말하기를, 劫火가 일어날 때 菩薩이 한 번 침을 뱉으면 불이 곧 멸하며 한 번 불면 世界가 곧 이루어진다고 하였다. 이것은 먼저 멸하고 후에 이루어진다는 것이 아니다. 다만 한 번의 침을 뱉는 가운데 곧 멸하고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 경은 外用·內合의 無生門을 밝혔으며, 卽破遍·卽立遍으로 破와 立이 두 가지가 아니라는 것이다. 만약 안으로 이러한 德이 없다면 곧 밖으로 大用이 없는 것이며, 밖에 의탁해서 안을 드러내는 것이며, 그 相이 이와 같은 것이다. 觀心으로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은, 衆生의 一期가 장차 끝나가려고 하는 것이 곧 劫盡이며, 三毒은 三災로 불로서 그 말의 실마리를 삼았으며, 止로서 그것을 그치는 것이 침을 뱉어서 멸하는 것과 같으며, 觀으로서 그것을 관하는 것이 불어서 이루어지는 것과 같다는 것이다.(운운)²⁵⁾

여기서는 無生門의 相에 대하여 破와 立의 두 가지를 말하고 그것이不二임을 『佛藏經』을 인용하여 설명하고 있다. 破는 침을 뱉는 것으로 나타내고, 立은 부는 것으로 나타내었다. 『佛藏經』에서는 劫火가 일어날 때 菩薩이 한 번 침을 뱉으면 불이 곧 멸하며, 한 번 불면 世界가 곧 이루어진다고 하는데, 불이 멸하고 세계가 이루어지는 것이 둘이 아니며, 한 번의 침을 뱉는 가운데 곧 멸하고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여기서 보듯이 침을 뱉어서 불을 끄는 것과 불어서 세계가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無生門의 相으로 그 두 가지는不二라고 하였다. 이것은 뱉어서 멸하는 것이 곧 破이

25) 同揭書, “佛藏云 劫火起時菩薩一唾火即滅 一吹世界即成 非是先滅後成 祇一唾中即滅即成 彼經明外用 內合無生門 卽破遍 卽立遍破立不須二念 若內無是德則外無大用 寄外顯內其相如是 須識觀心者 衆生一期將訖 卽是劫盡 三毒三災火為語端 以止止之如唾滅 以觀觀之如吹成(云云)”

고, 불어서 이루어지는 것이 곧 **立**으로 두 가지가 아니라는 것이다.

또한 **觀心**으로 보면 불은 곧 **三毒**이고, 침을 뱉어서 멸하는 것은 **止**로서 그치는 것이며, 불어서 세계가 이루어지는 것은 **觀**으로서 관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따라서 **無生門**의 **相**은 **止觀**이며, **止**와 **觀**이 **不二**인 것이다. 이러한 내용을 표로 나타내보면 다음과 같다.

표. 無生門의 相

無生門의 相	不二	唾	滅	外用	破遍	止
		吹	成	內合	立遍	觀

이와 같이 『佛藏經』을 인용하여 **無生門**의 **相**을 설명하면서 **破**와 **立**이 **不二**인 것이라고 하였다. 결국 **無生門**의 **相**에는 **破**의 모습만 있는 것이 아니라 **立**의 모습도 있으며, 그 **破**와 **立**이 **不二**인 것이 진정한 **相**이라는 것이다. 만일 **空觀**이 **破**하는 것이고, **假觀**은 **立**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中觀**은 **破立不二**라고 할 수 있다.

(3) 義

無生門의 **義**에 관하여 天台는 『大般涅槃經』의 내용을 인용하여 그것을 해석하면서 설명하고 있다. 먼저 『大般涅槃經』에서는 **生生·生不生·不生生·不生不生**의 **四句**의 뜻을 설명하고, 그 다음에 이러한 **四句**를 포함한 **生**과 **不生**이 모두 **不可說**임을 **生生不可說·生不生不可說·不生生不可說·不生不生不可說·生不可說·不生不可說**의 **六句**로 설명을 하고 있으며, 또한 **四句**에 대하여 **因緣**이 있으면 설할 수 있다고 하는데, 그 **因**이 되는 것으로 **十因緣法**을 들어 말하고 있다.²⁶⁾ 이것은 다시 말해 『大般涅槃經』에서는 **生生·生不生·不生生·不生不生**의 **四句**가 **不可說·亦可說**임을

易·非內非外·非相非非相·非方非圓·非尖非斜 等이라고 한다. 이러한 내용을 간단히 표로 나타내 보면 다음과 같다.

표. 『大般涅槃經』의 無生門

無生門	義
六句	一破一切破
十因緣法	一立一切立
四句	亦破亦立
十事功德 不可思議	非破非立

이와 같이 『大般涅槃經』에는 無生門을 설하고 있는데, 그 無生門이 破·立·亦破亦立·非破非立의 뜻을 모두 가지고 있다는 것이天台의 생각이다. 그리고 一破一切破의 의미는 六句로 설하여지고 있으며, 一立一切立의 의미는 十因緣法으로 설하여지고 있으며, 亦破亦立의 의미는 四句로 설하여지고 있으며, 非破非立의 의미는 十事功德의 不可思議로 설하여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렇듯이 無生門에는 一切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生生·生不生·不生生·不生不生の 四句의 無生門을 다음과 같이 볼 수도 있다. 위에서 『大般涅槃經』에서는 無生門인 四句가 不可說·亦可說임을 말하고 있다고 하였다. 또한 四句는 非破非立의 뜻으로도 말할 수도 있다. 十事功德은 菩薩摩訶薩이 『大般涅槃經』을 修行하여 얻는 공덕

28) 『大般涅槃經』(『大正藏』12, p.487上). “爾時世尊 告光明遍照高貴德王菩薩摩訶薩言 善男子 若有菩薩摩訶薩修行如是大涅槃經 得十事功德 不與聲聞辟支佛共 不可思議 聞者驚怪 非內非外 非難非易 非相非非相 非是世法 無有相貌 世間所無”

을 말한다. 그 十事功德의 第一功德에 五事が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들을 수 없는 것을 능히 듣는 것이다.²⁹⁾ 곧 不聞聞을 말하는 것이다. 이 不聞聞의 一句가 여러 가지 뜻을 가지며, 또한 生生·不生不生·生不生·生생의 四句의 뜻도 가지는 것이다.³⁰⁾ 간단히 말하여 十事功德에 四句가 포함되며, 十事功德이 非破非立이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四句가 非破非立이라고 하는 것이다. 四句가 非破非立이라는 것은 곧 非說非默으로 표현할 수 있다. 따라서 生生·生不生·不生不生의 四句는 不可說·亦可說·非說非默의 구조로 되어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이것을 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표. 四句의 可說과 不可說

無生門	四句	不可說	六句
		亦可說	十因緣法
		非說非默	十事功德 不可思議

그리고 이것이 『摩訶止觀』에서 『大般涅槃經』을 인용하여 無生門의 義를 해석하고 있는 순서이다. 다시 말해 生生·生不生·不生不生의 四句의 내용을 해석하고 그것이 不可說임을 六句의 내용을 해석하여 이끌어 내고 있으며, 또한 그것이 亦可說임을 十因緣法의 내용을 해석하여 설명하고 있으며, 다시 문답을 통해 四句가 非破非立 즉 非說非默임을 十事功德의 不可思議한 내용으로 간략하게 드러내고 있다. 다음에는 이

29) 上揭書, p.487上. “何等為十一者有五 何等為五 一者所不聞者而能得聞 二者聞已能為利益 三者能斷疑惑之心 四者慧心正直無曲 五者能知如來密藏 是為五事”

30) 智顛說, 『摩訶止觀』(『大正藏』46, p.60上). “大經釋義者 不聞聞一句有種種義 初云 生生不生不生不生 生生不生 按此四句說無生門”

러한 無生門인 四句의 해석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논하고자 한다.

2) 四句의 解釋

『摩訶止觀』에서는 『大般涅槃經』을 인용하여 無生門의 義를 해석하고 있는데, 生生·生不生·不生生·不生不生의 四句가 곧 無生門이며 이러한 四句의 각각을 해석하여 無生門의 義를 밝히고 있다. 『摩訶止觀』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大般涅槃經』은 義를 해석하고 있다. 不聞聞의 一句는 여러 가지 뜻이 있다. 처음에 말하기를 ‘不生生·不生不生·生不生·生生’이라고 하였다. 이러한 四句에 의하여 無生門을 설하는데, 自行의 因果와 化他的 能所 等の 法을 모두 두루 포섭하고 있다.³¹⁾

여기서 보듯이 無生門인 不聞聞의 一句가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그 가운데 不生生·不生不生·生不生·生生的 四句의 뜻이 있다고 하였다. 이러한 四句에 의하여 無生門을 설하는데, 그 無生門은 自行의 因果와 化他的 能所 等を 두루 포섭하고 있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無生門의 義는 不生生·不生不生·生不生·生生的 四句이며, 그러한 無生門의 義인 四句는 自行의 因果와 化他的 能所 等の 뜻을 두루 포섭하고 있다는 것이다.

『摩訶止觀』에서는 『大般涅槃經』에서 설하고 있는 四句의 내용을 인용하여 그것을 해석하고 있다. 그리고 無生門의 義인 四句가 自行의 因果

31) 同揭書. “大經釋義者 不聞聞一句有種種義 初云 不生生 不生不生 生不生 生生 按此四句說無生門攝自行因果化他能所等法皆遍”

와 化他의 能所 等の 뜻을 두루 포섭하고 있는 것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내용을 표로 간단히 나타내보면 다음과 같다.³²⁾

표. 四句에 대한 天台의 解釋

『大般涅槃經』의 四句	天台의 解釋	
生生	一破一切破	自行因果 化他能所
生不生	斷德成(吹中唾)	
不生生	智德成(唾中吹)	
不生不生	斷德·智德已圓 (一吹唾即滅即立)	

위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大般涅槃經』에서 설하고 있는 生生·生不生·不生生·不生不生の 四句의 내용을 인용하고 그것에 대하여 해석을 하면서, 生不生에는 혹을 과하여 단덕을 이루는 뜻이 있음을 말하고, 不生生에는 이치에 연하여 지덕을 이루는 뜻이 있음을 말하고,³³⁾ 不生不生에는 수행을 통해 도를 얻어 단덕과 지덕이 원만한 뜻이 있음을 말하고 있다.³⁴⁾ 『佛藏經』의 無生門의 相으로 보면 生不生은 吹中唾로 곧 滅을 의미하고, 不生生은 唾中吹로 곧 立을 의미하며, 不生不生은 一吹唾로 即滅即立을 의미한다고 해석하였다. 만일 空이 破하는 것이고, 假가 立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中道는 雙破 또는 雙立으로 非破非立 또는 亦破亦立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이것은 無生門인 四句가 공·가·중을 모두 포섭하고 있음을 의미하고 있다. 다시 말해 生不生은 滅로서 空을 의미하고 不

32) 同揭書. 참조.

33) 同揭書. “此釋初句初句上緣於理智德成故言不生生 此句下破於惑斷德成故言生不生”

34) 同揭書. “經釋不生不生者 不生不生名大涅槃 生相盡故 修道得故 今解果由因剋故言修道得故 斷德已圓無明不生 智德已圓般若不生 故言不生不生 此說自行寂滅忍 果義成也 因果既圓即如佛藏所明一吹唾即滅即立”

生生은 立으로서 假를 의미하며 不生不生은 非破非立 또는 亦破亦立으로서 中을 의미한다고 말할 수 있다.

(1) 六句와 不可說

『摩訶止觀』에서는 『大般涅槃經』에서 설하고 있는 不生生不可說·生生不可說·生不生不可說·不生不生不可說·生不可說·不生不可說의 六句에 의해서 無生門의 破法遍을 밝힌다³⁵⁾고 하였다. 天台는 『大般涅槃經』에서 설하고 있는 六句의 내용³⁶⁾을 인용하여 해석하고 있는데, 이것을 표로 간단히 나타내보면 다음과 같다.³⁷⁾

표. 六句에 대한 天台의 解釋

『大般涅槃經』의 六句	天台의 解釋
生生不可說	破思議惑(界內惑是枝末)
生不生不可說	破思議解(界內解止遣分段)
不生生不可說	破思議惑(界外惑附體生)
不生不生不可說	破思議解(界外解雙遣分段變易)
生不可說	破不思議惑
不生不可說	破不思議解

35) 同揭書. “經又六句 不生生亦不可說 生生亦不可說 生不生亦不可說 不生不生亦不可說 生亦不可說 不生亦不可說 按此六句明無生門破法遍”

36) 『大般涅槃經』(『大正藏』12, p.490中-下). “佛言 善哉善哉 善男子 不生生不可說 生生亦不可說 生不生亦不可說 不生不生亦不可說 生亦不可說 不生亦不可說 有因緣故亦可得說 云何不生生不可說 不生名為生 云何可說 何以故以其生故 云何生生不可說 生生故生 生故不生亦不可說 云何生不生不可說 生即名為生 生不自生故不可說 云何不生不生不可說 不生者名為涅槃 涅槃不生故不可說 何以故 以修道得故 云何生亦不可說 以生無故 云何不生不可說 以有得故”

37) 智顓說, 『摩訶止觀』(『大正藏』46, p.60下). “經又六句 不生生亦不可說 生生亦不可說 生不生亦不可說 不生不生亦不可說 生亦不可說 不生亦不可說 按此六句明無生門破法遍 若破思議惑用前四句 若破不思議惑用後二句 …”

부처님은 이러한 六句로서 諸法の 惑³⁸⁾과 解³⁹⁾를 破하려고 하였으며, 따라서 모든 것이 不可說이라고 하였다.⁴⁰⁾ 六句 가운데 生生不可說과 不生不生不可說은 思議惑을 破하는 것이고, 生不生不可說과 不生不生不可說은 思議解를 破하는 것이며, 生不可說은 不思議惑을 破하는 것이고, 不生不可說은 不思議解를 破하는 것이다. 이렇듯이 六句로서 思議와 不思議의 解와 惑을 破하고 있다.

다시 말해 견사혹·진사혹·무명혹의 모든 혹과 그 혹을 파하여 드러나는 이치인 공·가·중의 모두에 대하여 마음이 갈 곳이 멀하고 말할 길이 끊어져서 不可說이라는 것이다. 이와 같이 부처님이 『大般涅槃經』에서 六句로서 諸法の 解와 惑을 破하고 모든 것이 不可說이라고 한 것에 대하여 天台는 그것이 곧 無生門의 破法遍이라고 하였다. 또한 『佛藏經』의 無生門의 相으로 보면 六句의 전체는 곧 唾⁴¹⁾로서 破를 의미한다는 것이다.

(2) 十因緣法과 亦可說

『摩訶止觀』에서는 無生門에 破法遍의 의미가 있음을 『大般涅槃經』의 六句에 대한 해석의 풀이로서 나타내고 있는 반면에, 無生門에 遍立의 의미

38) 惑은 다음과 같이 분류할 수 있다.

惑의 분류			
思議惑			不思議惑
界內惑		界外惑	
見思惑(枝末惑)	塵沙惑(枝末惑)	塵沙惑(體上惑)	無明惑(根本惑)
空觀으로 파함	假觀으로 파함		中觀으로 파함

39) 여기서의 解는 惑에 대립되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으며, 解를 통해 分段生死와 變易生死를 벗어날 수 있다.

40) 上揭書, p.61上. “佛以六句破諸法解惑 皆言不可說”

41) 智顛說, 『摩訶止觀』(『大正藏』46, p.61上). “佛以六句破諸法解惑 皆言不可說 彌顯無生門破法遍也 依佛藏經前四句亦吹亦唾 後兩句結前吹唾耳 此六句專論於唾也”

가 있음을 같은 경전에서 설하고 있는 十因緣法으로 설명하고 있다.⁴²⁾ 天台는 無生門에 立의 의미가 있을 수 있으며 그것은 『大般涅槃經』에서 十因緣法으로 말하고 있다는 것이다. 無生門인 生生·生不生·不生生·不生不生の 四句에 대하여 인연이 있다면 설할 수가 있다. 『大般涅槃經』에서는 이러한 四句를 因緣이 있다면 또한 설할 수가 있다고 하였는데, 十因緣法이 생에 대하여 因이 되므로 설할 수 있다⁴³⁾고 하였다. 그리고 天台는 이것이 無生門의 두루 세우는 뜻이라고 해석하였다.⁴⁴⁾

『摩訶止觀』에서는 十因緣이 諸法을 세우는 것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다.⁴⁵⁾ 세우는 것에 세 가지 뜻이 있으며, 그것은 衆生과 機緣 그리고 聲敎라고 하였다. 다시 말하면, 五陰으로 된 假名の 衆生이 있고, 衆生의 根機가 있으며, 그 根機에 맞는 가르침인 聲敎가 있다. 十因緣이 이러한 세 가지를 세우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우선 衆生에 대하여 過去의 無明·行의 二因과 現在의 識·名色·六入·觸·受의 五果가 서로 因緣이 되어 五陰으로 된 假名の 衆生을 세운다. 다음으로 機緣에 대하여 過去의 析行·體行·漸行·頓行의 수행이 업

42) 同揭書. “大經云 十因緣法為生作因 亦可得說者 今解 此即無生門遍立之義”

43) 『大般涅槃經』(『大正藏』12, p.490下). “云何有因緣故亦可得說 十因緣法為生作因 以是義故亦可得說”

44) 智顛說, 『摩訶止觀』(『大正藏』46, p.61中). “大經云 十因緣法?生作因 亦可得說者 今解 此即無生門遍立之義”

45) 同揭書. “十因緣者 從無明支乃至有支立諸法也 立有三義 一立衆生 二立機緣 三立聲敎 立衆生者 過去二因現在五果 更互因緣 而立五陰假名衆生也 立根機者 過去或修行析行體行漸行頓行 以行為業無明潤之 致今五果於此陰果更起本習 或起析愛取有 或起體愛取有 或起漸愛取有 或起頓愛取有 取有起故得為機緣也 立聲敎者 析愛取有起故感三藏敎 是為生生不可說 十因緣法 為生生作因 亦可得說 說生生也 體愛取有感於通敎 是為生不生不可說 十因緣法 為生不生作因 亦可得說 說生不生也 漸愛取有感於別敎 是為不生生不可說 十因緣法 為不生生作因 亦可得說 說不生生也 頓愛取有感於圓敎 是為不生不生不可說 十因緣法 為不生不生作因 亦可得說 說不生不生也”

이 되어 現在의 五果에 이르게 되고, 이러한 果로 다시 本習을 일으키는 데, 析愛取有·體愛取有·漸愛取有·頓愛取有를 일으키며, 取와 有가 일어나므로 機緣이 형성된다. 다음으로 析愛取有·體愛取有·漸愛取有·頓愛取有가 일어나서 機緣이 형성되고 그 각각의 根機에 따라 三藏教·通教·別教·圓教를 感하게 되며 이것은 각각 生生不可說·生不生不可說·不生不生不可說·不生不生不可說이라고 하며, 또한 十因緣法이 각각에 대하여 因이 된다면 또한 說할 수가 있는데, 각각 生生·生不生·不生生·不生不生을 說한다고 하며 그것이 곧 聲教이다.

그리고 『摩訶止觀』에서는 “만약 衆生이 세워진다면 一切感法의 因果가 세워지고 一切의 所化가 세워지며, 만약 機教가 세워진다면 一切解行의 因果가 세워지고 一切의 能化가 세워지며, 이것이 無生門의 一立一切立이다”라고 하였다.⁴⁶⁾ 十因緣이 衆生과 機緣 그리고 聲教를 세우면, 一切의 感法·解行의 因果가 세워지고, 또한 一切의 所化·能化가 세워진다. 이것이 곧 無生門의 一立一切立의 의미다. 이러한 내용을 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표. 十因緣과 立諸法

立衆生		立機緣		立聲教	
過去二因	現在五果	過去修行	現在五果更起本習	感	說
無明	識	析行	起析愛取有	感三藏教 生生不可說	說生生
	名色	體行	起體愛取有	感於通教 生不生不可說	說生不生
行	六入	漸行	起漸愛取有	感於別教 不生生不可說	說不生生
	觸	頓行	起頓愛取有	感於圓教 不生不生不可說	說不生不生
一切感法因果立		一切解行因果立			
一切所化立		一切能化立			
無生門一立一切立					

앞의 六句에서는 諸法の 解와 惑을 破하고, 生生·生不生·不生生·不生不生の 四句를 포함한 六句가 모두 不可說이라고 하였는데, 여기 十因緣에서는 一切의 惑·解를 立하고, 또한 生生·生不生·不生生·不生不生の 四句가 可得說이라고 하였다.

이러한 無生門의 立의 의미에서 이타의 의미를 발견할 수 있다. 만일 衆生이 세워진다면 一切惑法の 因果가 세워지게 되고 그것은 一切의 所化가 세워진다는 것을 의미하며, 또한 만일 機緣과 聲敎가 세워진다면 一切解行의 因果가 세워지게 되고 一切의 能化가 세워진다고 하였다. 이와 같이 所化와 能化가 세워지게 되며 그것은 곧 利他的 假觀을 의미하게 된다. 天台는 無生門의 遍立의 의미를 十因緣法으로 말하고 있으며,⁴⁷⁾ 이러한 十因緣法에 대한 설명에서 이타의 의미 다시 말해 假의 의미를 찾을 수 있다. 또한 天台는 『佛藏經』의 無生門의 相으로 보면 十因緣法은 吹⁴⁸⁾로서 立을 의미한다고 하였다.

(3) 十事功德 不可思議와 非說非默

『摩訶止觀』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大般涅槃經』의 第十九卷의 처음에 말하기를 ‘十事功德은 不可思議하며, 듣는 자는 놀라는데, 그것은 非難非易·非內非外·非相非非相·非方非圓·非尖非斜 等이다’ 고 하였다. 곧 이것이 第四句인 非破非立의 뜻이다.⁴⁹⁾

46) 同揭書. “衆生若立 一切惑法因果立 一切所化立 機教若立 一切解行因果立 一切能化立 是為無生門一立一切立”

47) 同揭書. “大經云 十因緣法為生作因 亦可得說者 今解 此即無生門遍立之義”

48) 同揭書. “是為無生門一立一切立 故大品云 若聞阿字門則解一切義 佛藏云 一吹一切悉成”

十事功德은 菩薩摩訶薩이 『大般涅槃經』을 修行하여 얻는 공덕을 말한다. 그 十事功德의 第一功德에 五事가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들을 수 없는 것을 능히 듣는 것이다.⁵⁰⁾ 곧 不聞聞을 말하는 것이다. 이 不聞聞의 一句가 여러 가지 뜻을 가지며, 또한 不生生·不生不生·生不生·生생의 四句의 뜻도 가지는 것이다.⁵¹⁾ 간단히 말하여 十事功德에 生生·生不生·不生生·不生不生の 四句가 포함된다는 것이다. 十事功德이 不可思議하다는 것은 곧 無生門의 四句가 不可思議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大般涅槃經』에서 十事功德은 不可思議하며, 非難非易·非內非外·非相非非相·非方非圓·非尖非斜 等이라고 하였다.⁵²⁾ 그것은 十事功德 즉 無生門의 四句가 不可思議하며, 非難非易·非內非外·非相非非相·非方非圓·非尖非斜 等이라고 말할 수 있다. 天台는 이것이 非破非立의 뜻이라고 하였다. 다시 말해 無生門의 四句가 非破非立의 뜻이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非說非默으로 표현할 수 있다.

지금까지 天台가 『大般涅槃經』을 인용하여 無生門의 義를 해석한 것을 보았는데, 無生門인 生生·生不生·不生生·不生不生の 四句가 不可說·亦可說·非說非默이라고 하였다. 위에서 天台는 無生門의 相에 대하여 『佛藏經』을 인용하면서 睡滅과 吹成이 不二인 것이라고 하였다. 그런데 이러한 相과 義는 서로 연결될 수 있는데 표로 나타내보면 다음과 같다.

49) 同揭書. “大經十九卷初云 十事功德不可思議 聞者驚怪 非難非易非內非外 非相非非相非方非圓 非尖非斜等 即是第四句非破非立之文義”

50) 『大般涅槃經』(『大正藏』12, p.487上). “何等為十一者有五 何等為五一者所不聞者而能得聞 二者聞已能為利益 三者能斷疑惑之心 四者慧心正直無曲 五者能知如來密藏 是為五事”

51) 智顛說, 『摩訶止觀』(『大正藏』46, p.60上). “大經釋義者 不聞聞一句有種種義 初云 不生生 不生不生 生不生 生生 按此四句說無生門”

52) 『大般涅槃經』(『大正藏』12, p.487上). “爾時世尊 告光明遍照高貴德王菩薩摩訶薩言 善男子 若有菩薩摩訶薩修行如是大涅槃經 得十事功德 不與聲聞辟支佛共 不可思議 聞者驚怪 非內非外 非難非易 非相非非相 非是世法 無有相貌 世間所無”

표. 無生門의 義와 相

無生門	義		相
四句	不可說	破	唾
	亦可說	立	吹
	非說非默	非破非立	唾吹不二(非唾非吹)

여기서 보듯이 無生門의 相과 義가 서로 일치함을 알 수 있다.

3) 解釋의 體系

天台는 無生門에 대하여 攝·相·義로 나누어 해석하고 있으며 특히 『大般涅槃經』의 내용을 인용하여 無生門의 義에 관하여 四句로 설명을 하였으며, 이러한 四句가 不可說·亦可說·非說非默임을 六句·十因緣法·十事功德 不可思議로 각각 설명하였다. 이와 같은天台의 해석에서 다음과 같은 다섯 가지 사항이 체계적으로 연결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첫 번째로 無生門의 해석은 『法華經』의 開顯에 근거하고 있다. 破法遍에서는 藏教의 四門·通教의 四門·別教의 四門을 廢하고 圓教의 四門이 존재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圓教의 四門만이 破法遍에서 사용가능하다는 것이다. 三藏教·通教·別教의 四門은 破法遍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圓教에서는 一境一切境·一心一切心을 말하며, 橫豎諸法이 모두 마음이므로 破心을 하여 一切를 모두 破하게 되므로, 圓教의 四門은 豎遍과 橫遍을 말할 수 있고 따라서 破法遍은 圓教에서만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것은 藏教·通教·別教의 三權을 폐하고 圓教의 一實을 드러내는 廢三權興一實이며,⁵³⁾ 그것은 『法華經』의 開權顯實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이러한 開顯을 바탕으로 三教의 四門은 폐하고 오로지 圓教의

四門에 의해 破法遍을 해야 한다. 따라서 『摩訶止觀』에서 말하고 있는 無生門破法遍의 無生門은 圓敎의 無生門이어야 함을 알 수 있다.

두 번째로 無生門의 해석은 圓敎에 입각한 해석을 하고 있다. 開顯에 의해 圓敎의 無生門을 破法遍에서 사용해야 한다. 따라서 無生門의 의미를 드러내는데 있어서 圓敎에 입각하지 않을 수 없다. 실제로 破法遍에서는 無生門을 圓敎의 의미로 설명하고 있다.

『摩訶止觀』에서는 圓敎의 四門에 대하여 언급을 하고 있는데 그 내용을 표로 간단히 나타내보면 다음과 같다.⁵⁴⁾

표. 圓敎의 四門

圓敎의 四門			
初門	第二門	第三門	第四門
因緣所生法	卽空	卽假	卽中
有門	空門	亦空亦有門	非有非無門
初門既卽是三門 三門卽是一門			

53) 智顛說, 『摩訶止觀』(『大正藏』46, p.34中). “法華廢三權興一實”

54) 上揭書, p.75上-中. “圓敎四門妙理頓說異前二種 圓融無礙異於歷別 云何四門 觀見思假卽是法界 具足佛法 又諸法卽是法性因緣 乃至第一義亦是因緣 大經云 因滅無明卽得熾然三菩提燈 是名有門 空門者 觀幻化見思及一切法 不在因不屬緣 我及涅槃是二皆空 唯有空病空病亦空 此卽三諦皆空也 云何亦空亦有門 幻化見思雖無真實分別假名 則不可盡 如一微塵中有大千經卷 於第一義而 不動 善能分別諸法相 亦如大地一能生種種芽 無名相中假名相說 乃至佛亦但有名字 是為亦有亦無門 云何非有非無門 觀幻化見思卽是法性 法性不可思議 非世故非有 非出世故非無 一色一香無非中道 一中一切中 毘盧遮那遍一切處 豈有見思而非實法 是名非有非無門 云何一門卽是三門 一門尚是一切法 何止三耶 所以者何 觀因緣所生法是初門 一切皆初門 初門卽空 一空一切空卽是第二門 此初門卽假 一假一切假卽是第三門 此初門卽中 一中一切中卽是第四門 初門既卽是三門 三門卽是一門 但奉一門卽名 雖有四名理無隔別 如上依無生門破見思者 卽是空門 一門一切門不獨無生而已 一破一切破非止破見思而已 從假入空 一空一切空 非但空空生死而已 如是義者 卽是圓敎四門正是今之所用也”

因緣所生法이 卽空·卽假·卽中으로⁵⁵⁾ 圓融하며, 따라서 初門이 곧 三門이며, 三門이 곧 一門이다. 비록 네 가지 이름이 있어도 이치는 隔別하지 않고 圓融하다. 이것은 곧 因緣所生法이 空假中이며, 空이 空假中이며, 假가 空假中이며, 中이 空假中을 의미하고, 결국 有門으로도 三諦圓融의 이치로 들어가고, 空門으로도 三諦圓融의 이치로 들어가고, 亦空亦有門으로도 三諦圓融의 이치로 들어가고, 非有非無門으로도 三諦圓融의 이치로 들어가는 것을 의미한다. 無生門은 空門이며 따라서 無生門으로 三諦圓融의 이치로 들어갈 수 있다. 이러한 無生門을 破法遍에서 사용하고 있다.

破法遍에서는 여러 경전을 인용하여 無生門이 橫과 豎로 모두 포섭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는데 一門인 無生門이 因位와 果位 等 수행의 계위를 포괄하고 있으며, 또한 一切의 義를 갖추고 있다고 하는 것이 곧 圓敎에 입각한 해석이다. 無生門의 相에 대하여는 『佛藏經』을 인용하면서 唾滅과 吹成이 不二인 것이라고 하였는데, 이러한 해석은 圓敎를 바탕으로 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無生門의 義에 대하여는 『大般涅槃經』을 인용하여 그것을 해석하면서 설명하고 있었는데, 無生門인 不聞聞의 一句가 不生生·不生不生·生不生·生생의 四句의 뜻을 가지는 것⁵⁶⁾으로 말하고 있는데 이것도 또한 圓敎에 입각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와 같이 無生門의 攝·相·義에 대한 설명을 보면 모두 無生門을 圓敎의 관점에서 서술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특히 無生門이 포함된 경전의 인용을 보면 모두 대승경전으로 원교를 포함하고 있다.

세 번째로 無生門의 義에 대한 해석을 보면 그곳에는 圓融의 구조가 보인다. 天台는 無生門인 不聞聞의 一句가 不生生·不生不生·生不生·生

55) 龍樹造·青目釋, 『中論』(『大正藏』30, p.33中). “擘因緣生法我說卽是無亦為是假名亦是中道義”

56) 智顛說, 『摩訶止觀』(『大正藏』46, p.60上). “大經釋義者不聞聞一句有種種義初云不生生不生不生生不生生按此四句說無生門”

生の四句의 뜻이 있다고 하였다. 그의 해석을 보면 生不生은 滅로서 空을 의미하고 不生生은 立으로서 假를 의미하며 不生不生은 非破非立 또는 亦破亦立으로서 中을 의미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시 말해 四句에 공가중의 삼제가 있다. 그런데 이러한 四句가 다시 不可說·亦可說·非說非默임을 六句·十因緣法·十事功德 不可思議로 각각 말하고 있는데, 이러한 不可說·亦可說·非說非默은 또한 공가중의 삼제로 말할 수 있다. 따라서 이것은 원용의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天台는 『妙法蓮華經玄義』에서 三諦圓融에 대하여 언급⁵⁷⁾하고 있는데, 空·假·中의 三諦가 서로 具足하며 하나가 셋이고 셋이 곧 하나라고 하였다. 다시 말하면 空이 假와 中을 포함하고, 假가 空과 中을 포함하며, 中이 空과 假를 포함한다는 것이며, 空이 空假中이며, 假가 空假中이며, 中이 空假中이라는 것이다. 이것을 표로 나타내보면 다음과 같다.

표. 三諦圓融과 一三三一

三諦圓融								
空			假			中		
空	假	中	空	假	中	空	假	中
空假中	空假中	空假中	空假中	空假中	空假中	空假中	空假中	空假中
一三三一								

이와 같이 삼제원용은 空 가운데 空假中이 있는 구조이다. 無生門의 義도 이와 같은 구조로 되어 있다. 표로 간단히 나타내보면 다음과 같다.

표. 無生門의 義와 圓融構造

無生門(空)	四句 (空假中)	六句-不可說(空)
		十因緣法-亦可說(假)
		十事功德 不可思議-非說非默(中)

여기서 보듯이 無生門의 의에 대한 설명은 원용의 구조를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네 번째로 無生門에 대하여 攝·相·義로 해석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일관성을 가지고 있다. 破法遍에서는 여러 경전을 인용하여 無生門이 橫과 豎로 모두 포섭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는데 一門인 無生門이 因位와 果位 等 수행의 계위를 포괄하고 있으며, 또한 一切의 義를 갖추고 있다고 하였다. 그런데 無生門이 橫과 豎로 모두 포섭하는 뜻을 이해하기가 어려우므로 다시 『佛藏經』을 인용하여 그 相을 보이고, 『大般涅槃經』의 내용을 인용하여 그 義를 해석하고 있었다.

無生門의 相은 『佛藏經』을 인용하면서 唾滅과 吹成이 不二인 것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無生門의 義에 관하여는 『大般涅槃經』의 내용을 인용하여 그것을 해석하면서 설명하고 있었다. 天台는 『大般涅槃經』에서 설하고 있는 내용을 해석하면서 無生門의 四句인 生生·生不生·不生生·不生不生에는 自行의 因果와 化他的 能所 等の 뜻을 갖추고 있다고 하였다. 이러한 無生門의 相과 義에 대하여 표로 나타내보면 다음과 같다.

표. 無生門의 四句의 相과 義

無生門의 四句	
相	義
	生生
吹中唾(即滅)	生不生
唾中吹(即成)	不生生
一吹唾(即滅即立)	不生不生

57) 智顛說, 『妙法蓮華經玄義』(『大正藏』33, p.705上). “圓三諦者 非但中道具足佛法 真俗亦然 三諦圓融一三三一 如止觀中說(云云)”

여기서 보듯이 無生門의 相과 義가 서로 일치함을 알 수 있다.

無生門의 義를 生生·生不生·不生生·不生不生の 四句로 말할 수도 있지만 또한 破와 立의 四句인 破·立·亦破亦立·非破非立으로도 말할 수 있다. 이 때 無生門의 破의 의미는 生生不可說·生不生不可說·不生生不可說·不生不生不可說·生不可說·不生不可說의 六句로 나타낼 수 있으며, 無生門의 立의 의미는 十因緣法으로 나타낼 수 있으며, 無生門의 亦破亦立의 의미는 위에서 말한 生生·生不生·不生生·不生不生の 四句로 나타낼 수 있으며, 無生門의 非破非立의 의미는 十事功德의 不可思議로 나타낼 수 있다. 이러한 내용을 표로 나타내보면 다음과 같다.

표. 無生門의 攝·相·義의 연결

攝	相	義		
		一切	唾	六句
	吹	十因緣法	立	亦可說
	亦唾亦吹	四句	亦破亦立	亦說亦默
	唾吹不二(非唾非吹)	十事功德 不可思議	非破非立	非說非默

이와 같이 無生門의 설명을 보면 攝·相·義가 서로 연결되어 있으며 원교의 관점에 입각하여 일관성있게 전개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섯 번째로 敎門인 無生門에 대한 해석이 觀門인 無生門破法遍과 연결되어 일치함을 보이고 있다. 敎門인 無生門을 바탕으로 한 觀門인 無生門破法遍은 無生門의 相과 義에 따라 적용됨을 볼 수 있다. 無生門破法遍은 第一從假入空破法遍과 第二從空入假破法遍 그리고 第三中道第一義諦破法遍의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으며, 비록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지만 실제로는 하나이며 一心에 있다.⁵⁸⁾ 『摩訶止觀』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第三으로 中道止觀破法遍을 밝힌다. 앞의 生不生止觀破法遍은 마치 自行과 같으며, 다음의 不生生止觀破法遍은 마치 化他와 같으며, 지금의 不生不生止觀破法遍은 마치 雙非自他 또는 雙照自他和 같다. 生不生即不生生이며, 또한 即不生不生이다. 自即不自이며 또한 非自·非不自이다. 不生生即生不生이며, 또한 即不生不生이다. 他即非他이며 또한 非他·非不他이다. 不生不生即生不生이며 또한 即不生生이다. 또한 不雙非이며 또한 不雙照이다. 여러 가지로 분별하지만 쉽게 이해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설명한 것일 뿐이다.⁵⁹⁾

여기서 보듯이 無生の敎門을 바탕으로 한 觀門인 無生門破法遍은 生不生止觀破法遍·不生生止觀破法遍·不生不生止觀破法遍의 세 가지이다. 이것은 또한 각각 自行·化他·雙非自他 또는 雙照自他이다. 이것이 각각 第一從假入空破法遍과 第二從空入假破法遍 그리고 第三中道第一義諦破法遍의 세 가지이며, 곧 空觀·假觀·中觀임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세 가지가 별개의 것이 아니고 하나로 원용하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生不生은 生不生即不生生이며 또한 生不生即不生不生이고, 不生生은 不生生即生不生이며 또한 不生生即不生不生이고, 不生不生은 不生不生即生不生이며 또한 不生不生即不生生이다. 따라서 即生不生即不生生即不生

58) 智顛說, 『摩訶止觀』(『大正藏』46, p.62上). “一無生門破法遍者又為三一從假入空破法遍二從空入假破法遍三兩觀為方便得入中道第一義諦破法遍如此三觀實在一心法妙難解寄三以顯一耳”

59) 上揭書, p.80中. “第三明中道止觀破法遍者前生不生止觀破法遍一往似自行次不生生止觀破法遍一往似化他今不生不生止觀破法遍一往似雙非自他又雙照自他生不生即不生生亦即不生生自即不自亦非自非不自不生生即生不生亦是生不生他即非他亦非他非不他不生不生即生不生亦是生不生亦是生不生亦不生不生亦不生不生種種分別令易解故作如前說耳”

不生이며 곧 即空即假即中인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세 가지는 실제로
 一心에 있으며 다만 이해를 돕기 위하여 나누어서 설명을 하고 있을 뿐인
 것이다. 이러한 내용을 표로 나타내보면 다음과 같다.

표. 無生門과 無生門破法遍

圓敎의 無生門(敎門)		無生門破法遍(觀門)		
相	義	一心三觀		
吹中唾(即滅)	生不生	生不生止觀破法遍	自行	從假入空破法遍(空觀)
唾中吹(即成)	不生生	不生生止觀破法遍	化他	從空入假破法遍(假觀)
一吹唾(即滅即立)	不生不生	不生不生止觀破法遍	雙非自他·雙照自他	中道止觀破法遍(中觀)

표에서 보듯이 圓敎의 無生門을 바탕으로 한 觀門인 無生門破法遍이
 서로 일치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3. 結論

지금까지 『摩訶止觀』에서 無生門破法遍의 無生門에 대한 해석에 대하여
 논하였다.天台는 無生門을 攝·相·義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었으며, 특히
 『大般涅槃經』의 내용을 인용하여 義에 관하여 生生·生不生·不生生·不
 生不生の 四句로 설명하고 있었다. 그리고 이러한 四句가 不可說·亦可
 說·非說非默임을 六句·十因緣法·十事功德 不可思議로 각각 설명하였다.

天台의 無生門에 대한 체계적 해석에서 다음과 같은 것을 알 수 있다.
 無生門에 대한 해석이 첫 번째로 『法華經』의 開顯에 근거하고 있으며, 두
 번째로 원교에 입각한 해석을 하고 있으며, 세 번째로 원용의 구조가 나

타나고 있으며, 네 번째로 攝·相·義의 내용이 서로 일관성을 가지고 있으며, 다섯 번째로 教門인 無生門과 觀門인 無生門破法遍이 서로 연결되어 교관일치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비록 이와 같이 다섯 가지로 말한다 하더라도 가장 중요한 것은 開顯에 근거한 圓教에 입각한 해석이라고 말할 수 있다. 따라서 空을 단순히 空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空假中の 三諦圓融의 空으로 보게 되며, 空門인 無生門이 단지 無生門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無生門이 곧 一切門 다시 말해 一門이 곧 一切門으로 보게 된다.

이와 같은 원교의 관점에 따라 無生門의 攝에서는 無生門이 一切의 義를 갖추고 있다고 하였으며, 無生門의 相에서는 破와 立이 不二인 것으로 보았으며, 無生門의 義에서는 一破一切破·一立一切立·亦破亦立·非破非立의 뜻이 모두 있는 것으로 보았다.

본 논문에서는 有門·無門·亦有亦無門·非有非無門의 四門 가운데 無門인 無生門에 대한 天台의 해석에 대하여 논하였다. 無門 이외의 다른 문 또는 四門 전체에 대한 天台의 해석에 대하여도 체계적으로 논하여 볼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다.

● 주제어

『마하지관』, 무생문, 파법편, 원교

Abstract

Research on the Explanation of No-origination
Gate 無生門 in *Mahezhiqian* 『摩訶止觀』

Lee, Seungnam (Gwangdo)

In *Mahezhiqian* 『摩訶止觀』 it's explained by *Tiantai Zhiyi* 智顛 that No-origination Gate 無生門 has the meanings of deconstruction 破 · construction 立 · deconstruction and construction 亦破亦立 · non deconstruction and non construction 非破非立. In his explanation we could find the five important things. Firstly, his interpretation is on the base of exposing the Expedient and revealing the Real 開權顯實 in the *Lotus Sutra* 『法華經』. Secondly, as a result, his interpretation is founded on Perfect Doctrine 圓教. Thirdly, there is the formation of Three Truth Interfusion 三諦圓融. Fourthly, the contents of explaining inclusion · shape · sense of No-origination Gate 無生門 are organized consistently. Fifthly, No-origination Gate 無生門 as a teaching gate and Elimination of all illusions 破法遍 based on No-origination Gate 無生門 as a practicing gate are matched exactly. Although the five things are enumerated, the most important thing is that his interpretation is founded on Perfect Doctrine 圓教.

● Keywords

No-origination Gate, Elimination of all illusions, Perfect Doctrine.

2009년 5월 15일 투고

2009년 6월 22일 수정 후 게재